

가정 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 민 섭 [†]	오 경 자	홍 강 의	김 해 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병원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실	심리학과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실	소아정신과

본 연구에서는 일반 집단과 가정 폭력으로 의뢰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가정 폭력의 발생 비율과 유형, 심각성 및 가정 폭력에 대한 지각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가정 폭력이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적응 및 자녀 양육 태도와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일반 집단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 인천, 일산, 대전, 충주, 광주, 대구, 부산에 거주하는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72명의 주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상 집단은 가정 폭력으로 의뢰된 가정 폭력 피해자 1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 경험 조사 질문지와 대처 방식 척도, 갈등 대처 유형 척도(CIS-2), 그리고 양육 태도에 대한 질문지 및 아동 학대 평가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임상 집단의 경우에는 CBI와 SCL-90-R도 함께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 집단의 경우, 19명 (26.6%)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명 (81.6%) 언어 폭력을, 5명 (27.9%) 심리적 폭력을, 3명 (20.9%) 성폭력을, 36명(19.1%)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 집단의 경우에는 결혼 2년 후부터 폭력을 당하기 시작한 사람이 51.6%로 가장 많았으나 임상 집단은 결혼 초부터인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가정 폭력 경험이 있는 일반 집단의 경우에는 가정 폭력이 없는 집단들에 비해 배우자의 폭력 행동을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의 표현이며, 그럴 수도 있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임상 집단과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일반 집단이 자녀에 대해 더욱 통제적이고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임상 집단이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을 더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양육태도, 심리적 적응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2-H00009)

† 교신저자 : 신 민 섭 / 서울대학병원 신경정신과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FAX : 02-744-7241 / E-mail : shinms@snu.ac.kr

가정 폭력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Campbell, 1991; Kobin, 1995), 폭력자에 의해 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 상실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아동에게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issa, Alyria & Michael, 2001). Browne (1993)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여성 인구 중 21%에서 34%가량이 전 생애 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당한다고 한다. 전체 살인 사건의 13% 정도 또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이 중 50% 가량이 부부간에 발생하는데, 가해자의 60% 이상이 남편이었다는 보고도 있다(Bousha & Twentyman, 1984). 아동들의 경우에도, 약 330만 명 가량이 폭력이 자행되는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가정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arlson, 1984).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아동학대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2921건으로 2002년(2478 건)에 비해 17.9%나 늘었다. 또한 7500명의 아내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이중 61.0%가 한번 이상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2003).

가정 폭력은 매우 유해한 것으로써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그러한 폭력을 경험한 파트너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여권 운동가에 의해 가정 폭력이 문제화되었고, 1980년대에 와서 국가 공중 보건 영역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는 등 일찌감치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및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정 폭력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공론화 된 것은 1998년 7월에 제정된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다. 가

정 폭력에 대한 법안이 제정된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총 2,365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348명이 형사 입건되었으며(윤양소, 1999), 1999년에는 8,080명, 2000년에는 11,999명이 접수되는 등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급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치료적 개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장덕희, 2001).

가정 폭력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쉽게 부각되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과 남아선호사상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점과 부부싸움이나 가정 폭력을 국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정 내적인 문제로 취급하여 타인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힘든 처지에 있으며, 은폐된 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정 폭력 문제를 범죄행위나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유성애, 2001). 따라서 이와 같은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 가정 폭력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의 유형 면에서도 서구 문화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가정 폭력 발생률과 유형 및 심각성과 가정 폭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정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아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 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어떤 종류의 학대 행위가 가정 폭력의 범주 안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형적으로 자녀 학대, 배우자 학대, 부모 학대를 포함하는 가정 폭력은 “개인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 행하는 신체적인 폭력 행위”라고 정의되어 왔다(Gelles & Strause, 1979). 하지만 신체적인 공격에 더해 심리적인 학대나 언어적 학대 또한 가정 폭력이라는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 학대나 언어적 학대는 모든 성인들이 어느 정도는 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중 매체뿐만 아니라 연구들에서도 관심을 덜 받아 왔다. 같은 맥락에서, 심리적인 학대나 언어적인 공격을 학대라고 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및 원치 않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요구 행위 등에 대한 임상적 관찰 결과, 이러한 행위들도 이를 당하는 사람 및 목격한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Leary & Jouriles, 1994). 즉, 신체적인 학대와는 무관하게 배우자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 같은 심리적 학대 및 언어적 위협과 원치 않는 강압적인 성행위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정 폭력 방지법에 명시된 가정 폭력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도 언어적, 심리적 학대 및 배우자외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자녀에 대한 학대도 포함하고 있지만 신체적 폭력외의 폭력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 및 성적 학대 등 다양한 유형의 학대 행위가 아동 및 가족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

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가정 폭력은 가해자의 학력, 정신병리, 부정적인 생활 사건과 스트레스, 경제 상태, 종교 등과 같은 많은 심리·사회적인 변인들과 관련된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과 낮은 자아 존중감, 자신감 부족, 분노 통제 능력의 결여 및 편집증적 성격이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 병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몇몇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으나(김광일, 1988; 허남순, 1993), 결과의 일관성은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가해자의 폭력은 교육 수준이나 가정의 경제 상태 및 종교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에 반해,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 폭력의 발생 비율이 낮다는 결과(송남두, 2000)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고, 한정된 지역내에 거주하는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정 폭력은 피해자 및 그것을 목격한 아동들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실정이다(Alissa et al, 2001). 다만,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폭력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여 자존감이 매우 낮고, 내면에 가득한 분노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들을 호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광일, 1988). 특히, 정신 의학적 연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 중 85.5%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7.5% 가량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김광일, 1988; 유성애, 2001). 또한 이들은 심리적인 고통 및 우울감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할만한 기회가 부족하고, 아동과 덜 상호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의 욕구 수준에 둔감하고, 무반응적

인 면이 있다(Azar, Barnes & Twentyman, 1988; Bousha & Twentyman, 1984; Eckenrode, Laird & Doris, 1993). Jaffe, Wolfe와 Wilson(1990)은 가정 파괴 가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정 폭력은 피해자의 심리적 기능 및 양육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몇몇 연구들에서도 가정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모의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증, 양육 능력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내현화 문제나 외현화 문제, 그리고 외상적 증상들에 미치는 가정 폭력의 영향을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ham-Bermann & Levendosky, 1998; Holden & Ritchie, 1991; Jaffe, Wolfe, Wilson & Zak, 1985, Levendosky & Graham-Bermann, 1999; Margolin & John, 1997; Rossman, Bingham, Cimbor, Dickerson, Dexter, Balog & Mallah, 1993; Wolfe, Jaffe, Wilson & Zak, 1985).

그러나 가정 폭력을 목격한 모든 아동들이 심리적 기능에 있어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즉, 최근의 연구에서는 지지적인 가족 구성원과 같이 안정적인 보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이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도 모의 안정적인 양육 방식과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가정 폭력과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간의 직접적인 상관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가정 폭력과 아동의 심리적 기능을 증대하는 변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실제 장면에서 종사하는 임상가들이 효과적인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인 모의 양육 방식과 아동 학대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모의 심리적 문제와 양육 방식이 아동의 심리적인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구속되어 임상 장면에 의뢰된 집단과 일반 가정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양육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가정 폭력 발생률은 어느 정도 인가?
2. 가정 폭력의 하위 유형 및 유형별 발생률은 어떠한가?
3. 가정 폭력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가?
4. 가정 폭력에 대한 배우자 피해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5. 가정 폭력은 학력, 생활 스트레스, 종교와 관련이 있는가?
6. 폭력 피해자인 모의 양육 방식은 어떠한가?
7.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자녀를 학대할 위험성이 더 높은가?
8. 일반 집단에서 보고된 가정 폭력의 유형과 심각성, 피해자의 양육 태도는 가정 폭력으로 경찰이나 법원, 보호 관찰소에 의뢰된 사례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일반 집단

2003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과 일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주 등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한명 이상의 자녀들을 둔 721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

하였다. 질문지 기록자인 주부들의 평균 연령은 35.11세(표준편차=4.09, 범위=25~49세)였으며,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37.56세(표준편차=4.09, 범위=27~54세)였고, 결혼 지속기간은 평균 9.45년(표준편차=3.68, 범위=1~23년)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임상 집단

일반 집단과 동일한 시기에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배우자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경찰이나 법원, 보호 관찰소에 의뢰된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주부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3.25세(표준편차=5.75, 범위=32~54세)였으며, 가해자인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47.33세(표준편차=3.96, 범위=41~54세)였고 결혼 지속 기간은 평균 19.8년(표준편차=8.70, 범위=4~37년)으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절차

일반 집단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도시, 중소 도시의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학부모들이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임상 집단은 보호 관찰소 및 연계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연구 당시 강제

수강 명령을 받아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가해자들의 배우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연구자와 훈련받은 연구 보조자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정신 질환 평가 척도

간이 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 90-Revised; SCL-90-R). 성인의 정신 병리를 평가하는 9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보고형 질문지로 Derogatis(1977)가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것이다. 불안 공포증, 강박증, 대인 관계 민감성, 적대감, 우울증, 신체화 장애 및 정신병 등을 포함하는 10가지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 원점수는 연령, 성별 기준에 입각하여 T점수로 환산된다.

생활 스트레스 평가 척도

생활 경험 조사 질문지(Life Experience Survey; LES). 개인의 생활에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는 57건의 생활 경험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출현한 빈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지이다. Sarason, Johnson 및 Siegel(1978)이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이영호(1993)가 번안하여 표

표 1. 각 집단별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령(년) 평균(표준편차)	결혼 기간(년) 평균(표준편차)
일반 집단	연구 대상자/여(N=721)	35.11(4.09)	9.45(3.68)
	배우자/남(N=721)	37.56(4.09)	
임상 집단	가정 폭력 피해자(N=13)	43.25(5.75)	19.8(8.70)
	가정 폭력 가해자(N=13)	47.33(3.96)	

준화한 것이다. -3점에서 +3점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

개인의 대처 방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것을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일부 문항을 제외시키거나 수정하여 구성한 척도이다. 총 6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그 원인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문제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만 몰두하는 정서 완화적 대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 소망을 가지는 소망적 사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 및 도움을 구하는 사회적 지지 추구라는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는 적극적 대처로,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묶어서 소극적 대처로 구분한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95이다.

갈등 대처 유형 척도(Straus's Conflict Tactics Scale-version 2; CTS-2)

CTS-2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 빈도와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Straus 등(1996)이 CTS-1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안하여 수정, 개발한 것을 손정영(1997)이 표준화하였다.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상(비폭력적),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행, 강압적인 성행위, 그리고 상해와 같은 5가지 하위 척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적 폭력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무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체적 폭행에는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무기를 사용하여 구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성행위에 대한 강압적인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

7~.94이다.

양육 방식에 대한 평가 도구들

양육 태도 질문지. 부모의 양육 행동을 평가하는 6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척도로, Schaefer(1959)가 개발한 것을 이원영(1983)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애정적, 적대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 및 양육 태도의 일관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62~.84이다.

아동 학대 평가 척도(장화정, 1998). 아동 학대 유발원인 척도(아동 특성, 부모 특성)와 학대 행위 척도(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일반적 훈육), 학대 결과 척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대 결과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92이다.

아동 행동 조사표(The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아동의 문제 행동을 평정하기 위해 Achenbach(1983)가 개발한 것을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것을 임상 집단에만 실시하였다. 이 질문지는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 행동 증후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능력 척도의 경우 하위 척도로 사회성 척도와 학업 수행 척도, 총 사회 능력 점수가 있고,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는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 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들은 위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성문제, 정서 불안정성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척도별 내적 합치도가 .62~.86이다. 또한 이 척도의 임상 범위 판단은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 행동 점수의 경우 63T 이

상,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는 70T 이상, 사회 능력 척도는 총 사회능력 점수가 33T 이상, 사회성 척도 및 학업 수행 척도는 30T 이상이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에서의 가정 폭력의 발생률과 가정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 폭력의 하위 유형 및 심각성, 그리고 가정 폭력 피해자의 정신질환, 생활 스트레스, 종교, 학력 수준, 자녀 양육 태도 및 자녀 학대 가능성과 실제 학대 양상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과 χ^2 -검증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 집단과 임상 집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일반 집단의 가정 폭력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을 비교한 것은 결과 1에, 일반 집단과 임상 집단을 비교한 것은 결과 2에, 임상 집단 피해자들의 정신 병리와 아동의 행동 특성은 결과 3 부분에 각각 제시하였다.

결과 1: 일반 집단간 비교

가정 폭력 발생을 및 유형

일반 집단의 경우, 총 조사 대상자 721명 중 192명(26.5%)이 한번 이상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들 중 36명(19.1%)이 신체적 폭력을, 151명(81.6%)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53명(27.9%)이 심리적 폭력을, 39명(20.9%)이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언어적 폭력만을 경험한 사람은 16명, 심리적 폭력만을 경험한 경우는 7명, 신체적 폭력만을 경험한 경우는 2명, 그리고 성폭력만을 경험한 경우는 1명이었다. 이에 더해, 두 가지 이상의 폭력을 동시

에 경험한 사람은 모두 88명에 해당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32명, 신체적 폭력과 동시에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21명, 다음으로 심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15명,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 12명,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8명이었다. 세가지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 또한 68명이나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는 10명에 해당되었다. 임상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가 4가지 종류의 폭력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의 지속기간

일반 집단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 중, 결혼 전부터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해왔다고 보고한 사람이 9명(4.69%), 결혼 초부터라고 응답한 사람은 52명(27.08%), 결혼 1년 후부터는 32명(16.67%), 결혼 2-3년 후부터는 99명(51.56%)이었으며, 가정 폭력의 지속 기간은 평균 5.9개월(표준편차=22.7개월, 범위=0개월-17년)이었다.

가정 폭력에 대한 태도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의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배우자의 태도를 살펴 본 결과, 가정 폭력 무경험 집단이나 유경험 집단 모두 폭력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무경험 집단에 비해 배우자의 언어 폭력, $\chi^2(2, N=721)=34.3, p<.001$, 경미한 신체적 폭력, $\chi^2(2, N=721)=29.2, p<.001$, 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 “나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의 표현이다”고 보고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더욱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경미한 신체적 폭력, $t(556)=-2.54, p<.01$, 과 심각한 신체적 폭력, $t(556)=-3.09, p<.01$, 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언어적 폭력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2, 3). 그러나 폭력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장 과정중 신체적, $\chi^2(3, N=$

표 2. 가정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 무 (n=529)	가정폭력 유 (n=192)	χ^2
언어 폭력	그럴 수도 있다.	21(5.8%)	38(21.0%)	34.3 ***
	나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이다.	8(2.2%)	9(5.0%)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3(0.8%)	0(0%)	
	절대 용납할 수 없다.	331(91.2%)	134(74.0%)	
경미한 신체 폭력	그럴 수도 있다.	9(2.4%)	15(8.2%)	29.2 ***
	나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이다.	0(0%)	7(3.8%)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0(0%)	2(1.1%)	
	절대 용납할 수 없다.	365(97.6%)	160(87.0%)	
심각한 신체 폭력	그럴 수도 있다.	5(1.4%)	4(2.3%)	4.62
	나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이다.	0(0%)	2(1.1%)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0(0%)	0(0%)	
	절대 용납할 수 없다.	349(98.6%)	169(96.6%)	

*** $p<.001$

표 3. 가정 폭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 무 (n=529)	가정폭력 유 (n=192)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언어폭력	5.78(2.04)	5.82(2.02)	-0.48
경미한 신체폭력	5.24(0.46)	5.48(0.89)	-2.54**
심각한 신체폭력	4.77(1.29)	5.19(1.60)	-3.09**

** $p<.01$

표 4.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

	가정폭력 무 (n=403)	가정폭력 유 (n=174)	χ^2
신체적 학대	39(9.7%)	31(17.8%)	7.55 **
언어적 학대	30(7.4%)	46(26.4%)	38.81 ***
정서적 학대	4(1.0%)	10(5.8%)	11.70 ***
성적인 학대	2(0.5%)	9(5.2%)	14.31 ***

*** $p < .001$ ** $p < .01$

577) = 7.55, $p < .01$, 언어적, $\chi^2(3, N=577)=38.81$, $p < .001$, 정서적, $\chi^2(3, N=577)=11.70$, $p < .001$, 성적, $\chi^2(3, N=577)=14.31$, $p < .001$,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4). 폭력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 중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심리적 폭력 집단 중 8명(16.1%), 신체적 폭력 집단 중에서는 5명(19.2%), 성폭력을 경험 집단에서는 7명(20.0%), 언어 폭력 집단에서는 1명(17.2%)이 해당되었다. 언어적 학대의 경우에도 심리적 폭력 집단에서는 12명(23.2%), 신체적 폭력 집단

에서 9명(34.6%), 성폭력 집단 중 10명(31.4%), 언어적 폭력 집단에서는 15명(25.0%)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도 심리적 폭력 집단에서 5명(8.9%), 신체적 폭력 집단에서는 0명(0%), 성폭력 집단에서는 1명(2.9%), 언어적 폭력 집단에서 4명(6.3%)이었다. 성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폭력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폭력 4명(7.1%), 신체적 폭력 2명(7.7%), 성폭력 2명(5.7%), 언어적 폭력 1명(1.6%)이었다.

표 5. 일반 집단의 학력, 종교 분포

		학 력						χ^2	종 교					χ^2
		무학	초등 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기타	
가정 폭력 무	본 인	1 (0.2%)	3 (0.7%)	5 (1.2%)	204 (49.8%)	191 (46.6%)	6 (1.5%)	8.56	127 (31.0%)	80 (19.5%)	45 (11.0%)	155 (37.8%)	3 (0.7%)	8.46
	배 우 자	2 (0.5%)	1 (0.2%)	7 (1.7%)	129 (31.5%)	249 (60.7%)	22 (5.4%)	8.53	101 (24.9%)	76 (18.7%)	32 (7.9%)	194 (47.8%)	3 (0.7%)	14.9 **
가정 폭력 유	본 인	0 (0%)	0 (0%)	4 (2.1%)	114 (59.7%)	69 (36.1%)	4 (2.1%)		41 (21.5%)	36 (18.8%)	27 (14.1%)	83 (43.5%)	4 (2.1%)	
	배 우 자	0 (0%)	2 (1.0%)	5 (2.6%)	74 (38.7%)	96 (50.3%)	14 (7.3%)		22 (11.5%)	43 (22.5%)	16 (8.4%)	107 (56%)	3 (1.6%)	

** $p < .01$

가해자 및 피해자의 학력, 생활 스트레스, 종교

일반 집단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종교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가해자들은 종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4, N=597)=14.9, p<.01$. 즉 가정 폭력을 보이지 않은 배우자 집단의 경우에는 가정 폭력을 보인 배우자 집단에 비해 기독교(101명, 24.9%)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생활 스트레스 면에서 살펴볼 때,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41)=3.25, p<.01$ (표 6). 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4, 565)=2.76, p<.05$, 사후검증 결과, 성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많은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565)=2.76, p<.05$.

폭력 피해자의 양육 방식

일반 집단 중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무 경험 집단에 비해 적대적인 양육 방식, $t(541)=-4.6, p<.001$,과 일관적인 양육 방식, $t(541)=-5.1, p<.001$,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은 더 애정적이고, $t(541)=5.9, p<.001$, 자율적인 양육 태도, $t(541)=3.2, p<.001$,를 보였다(표 7). 폭력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애정적 양육, $F(4, 571)=7.32, p<.001$, 적대적 양육, $F(4, 571)=3.32, p<.001$,과 일관적 양육 태도, $F(4, 571)=6.69,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더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으며,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집단보다 더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성

표 6. 생활 스트레스

	가정 폭력 무	가정 폭력 유	t
생활 스트레스	-1.46(2.21)	-2.16(2.53)	3.3 ***

*** $p<.001$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

표 7. 일반 집단의 양육 태도

양육태도	가정 폭력 무 (n=354)	가정 폭력 유 (n=172)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애정적	43.74(7.13)	39.57(8.43)	5.9 ***
적대적	15.02(8.09)	18.49(8.57)	-4.6 ***
자율적	35.84(6.12)	34.09(5.41)	3.2 **
통제적	24.98(6.33)	25.36(5.76)	-0.7
일관적	11.81(4.14)	13.65(3.67)	-5.1 ***

*** $p<.001$ ** $p<.01$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적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자의 자녀 학대 가능성 및 학대 행위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아동의 장애, $t(541)=-3.9, p<.001$, 나 부적절한 출생 상황, $t(541)=-2.5, p<.05$, 및 아동의 기질, $t(541)=-5.8, p<.001$, 과 같은 아동 특성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문제, $t(541)=-8.4, p<.001$, 로 인해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실질적인 자녀 학대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도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아동에 대해 신체적, $t(541)=-3.8, p<.001$, 정서적으로 학대,

$t(541)=-5.7, p<.001$, 할 뿐만 아니라 방임, $t(541)=-4.5, p<.001$,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9). 폭력 유형별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살펴 보았을 때, 아동의 장애, $F(4, 571)=4.97, p<.001$, 출생 상황, $F(4, 571)=4.27, p<.01$, 아동의 기질 $F(4, 571)=9.28, p<.001$, 부부관계 $F(4, 571)=19.3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장애 및 출생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성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아동 기질에 대해서는 심리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는 모든 유형의 폭력 경험 집단이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학대 행위에 대해 폭력

표 8. 일반집단에서 자녀 학대 유발 원인

		가정폭력 무	가정폭력 유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아동 특성	아동의 장애	3.66(1.37)	4.38(3.07)	-3.9***
	출생 상황	4.39(1.63)	4.81(2.18)	-2.5*
	아동 기질	8.28(3.15)	10.09(4.28)	-5.8***
부모 특성	부부 관계 문제	30.85(8.61)	38.96(18.08)	-8.4***

*** $p<.001$ * $p<.05$

표 9. 일반 집단에서 자녀 학대 행위

	가정폭력 무	가정폭력 유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신체적 학대	18.85(3.09)	20.03(4.35)	-3.8***
정서적 학대	24.73(4.07)	27.73(8.43)	-5.7***
방임	16.94(2.39)	18.15(4.07)	-4.5***

*** $p<.001$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언어적 폭력 경험에 있는 집단이 가정 폭력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으며, $F(4, 571) = 4.65, p < .00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언어 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각각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571) = 11.11, p < .001$. 또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녀를 방임하는 행동을 보였다, $F(4, 571) = 5.70, p < .001$.

가정 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및 앞으로의 계획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폭력을 당했을 때 “없었던 일로 한다”고 보고한 비율이 37.0%(50명)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34.1%, 46명), “그냥 참는다”(20.0%, 27명), “경찰을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8.9%, 12명)의 순이었다(표 10). 또한 이들은 배우자의 폭력 행동에 대해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함께 상담 받기를 원하거나”(48.8%, 61명)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18.4%, 23명)고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표 11).

표 10.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방식

	가정폭력 무	가정폭력 유
해당사항 없음	232(100%)	0(0%)
없었던 일로 한다		50(37.0%)
그냥 참는다		27(20.0%)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46(34.1%)
경찰을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12(8.9%)

표 11.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

	가정폭력 무	가정 폭력 유
해당 사항이 없다	169(100%)	12(9.6%)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배우자의 구타 행동만 고쳐지기를 바란다		15(12.0%)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고 노력하기를 원한다		61(48.8%)
일시적인 별거를 원한다		7(5.6%)
이혼을 원한다		2(1.6%)
배우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5(4.0%)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23(18.4%)
기타		12(9.6%)

결과 2: 일반 집단 중 가정 폭력 경험 집단과 임상 폭력 집단 비교

먼저 일반 집단 중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임상 폭력 집단간을 여러 변인 상에서 비교하였으며, 임상 폭력 집단과 일반 집단의 피해자수와 폭력의 심한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수를 같게 하기 위해 일반 집단에서 임상 집단과 유사하게 모든 유형의 심한 폭력을 경험한 10명의 피해자를 선발하여 부가적으로 다시 비교분석하였다.

가정 폭력의 지속 기간

임상 폭력 집단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응답자 11명 중 결혼 전부터 폭행을 당해왔다고 보고한 사람이 1명(9.1%), 결혼 초부터라고 응답한 사람은 8명(72.7%)이었으며, 결혼 2-3년 후부터는 2명(18.2%)으로 결혼 직후부터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 폭력의 지속 기간 또한 17.2년(표준편차=107.2개월, 범위=3.3년~25년)으로 일반 집단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평균=5.9개월, 표준편차=22.7개월, 범위=1개월~17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t(195)=-23.68, p<.001$ (표 12). 피해자수와 폭력의 심한 정도가 유사한 일반, 임상 폭력 집단 간을 비교한 결과

에서도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의 경우 폭력 지속 기간이 1년 9개월(표준편차=48.64개월, 범위=1개월~11년)로 임상 폭력 집단이 폭력 지속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F(1, 15)=17.39, p<.001$.

가정 폭력의 심각성

임상 폭력 집단이 일반 가정 폭력 경험 집단에 비해 갈등 대처 전략으로써 인지적 협상, $t(195)=-5.14, p<.001$, 약한 심리적 폭행, $t(195)=-3.18, p<.001$, 심한 심리적 폭행, $t(195)=-6.21, p<.001$, 약한 신체적 폭행, $t(195)=-7.31, p<.001$, 심한 신체적 폭행, $t(195)=-7.19, p<.001$, 및 약한 성폭행, $t(195)=-6.34, p<.001$, 과 심한 성폭행, $t(195)=-11.33, p<.001$, 을 유의미하게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약한 상해, $t(195)=-4.96, p<.001$,와 심한 상해, $t(195)=-6.89, p<.001$., 도 모두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표 13). 피해자수를 동일하게 하여 재분석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가정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 폭력에 대한 태도 면에서는 임상 집단과 일반 집단의 가정 폭력 유경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14). 그러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지각에서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

표 12. 일반집단의 가정 폭력 경험 집단과 임상 집단의 가정 폭력 지속 기간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n=192)	임상 폭력 집단(n=11)	t
폭력 지속 기간	5.9개월(22.7)	17.2년(107.2)	-23.68***

 $p<.001$

표 13. 가정 폭력의 심각성 (CTS-2)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 (n=192)	임상 폭력 집단 (n=13)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감정적 협상	9.84(10.29)	14.33(5.05)	-1.3
인지적 협상	7.66(3.60)	14.22(5.91)	-5.14***
약한 심리적 폭행	9.91(6.66)	17.64(3.14)	-3.18***
심한 심리적 폭행	4.01(5.56)	15.20(5.01)	-6.21***
약한 신체적 폭행	5.38(6.84)	22.22(4.29)	-7.31***
심한 신체적 폭행	4.11(8.76)	25.78(10.03)	-7.19***
약한 성폭행	3.48(4.86)	14.00(4.92)	-6.34***
심한 성폭행	1.69(5.39)	22.44(4.53)	-11.33***
약한 상해	1.76(3.14)	6.63(3.67)	-4.96***
심한 상해	1.35(4.40)	13.38(6.95)	-6.89***

 $p < .001$

표 14. 일반 가정 폭력 경험 집단과 임상 집단의 가정 폭력에 대한 태도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 (n=172)	임상 폭력 집단 (n=12)	χ^2
언어 폭력	그럴 수도 있다.	38(21.0%)	1(8.3%)	1.96
	나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이다.	9(5.0%)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0(0%)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34(74.0%)	11(91.7%)	
경미한 신체 폭력	그럴 수도 있다.	15(8.2%)	1(8.3%)	0.62
	나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이다.	7(3.8%)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2(1.1%)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60(87.0%)	11(91.7%)	
심각한 신체 폭력	그럴 수도 있다.	4(2.3%)	1(8.3%)	1.70
	나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이다.	2(1.1%)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0(0%)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69(96.6%)	11(91.7%)	

표 15. 일반 가정 폭력 경험 집단과 임상 폭력 집단의 가정 폭력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지각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	임상 폭력 집단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언어폭력	5.82(2.02)	5.68(2.59)	3.46 ***
경미한 신체폭력	5.48(0.89)	5.18(1.71)	4.82 ***
심각한 신체폭력	5.19(1.60)	4.71(1.73)	5.39 ***

*** $p < .001$

의 경우 임상 집단에 비해 배우자의 언어적 폭력, $t(195)=3.46$, $p < .001$, 경미한 신체적 폭력, $t(195)=4.82$, $p < .001$, 및 심각한 신체 폭력, $t(195)=5.39$, $p < .001$, 모두 쉽게 변화될 수 있다고 지각하였다(표 15).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

임상 폭력 집단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에 비해 성장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3, N=203)=6.35$, $p < .001$, (표 16).

학력, 생활 스트레스, 종교

가정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 보다 임상 폭력 집단의 학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chi^2(5, N=191)=47.16$, $p < .001$. 가정 폭력 가해자 또한 임상 폭력 집단의 학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5, N=191)=57.19$, $p < .001$. 종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7).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임상 폭력 집단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195)=18.92$, $p < .001$, (표 18). 피해자수와 폭력의 심한 정도가 유사한 일반, 임상 폭력 집단 간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임상 집단이 유의미하게 많은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5)=4.74$, $p < .001$.

표 16.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과 임상 폭력 집단의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 (n=192)	임상 폭력 집단 (n=11)	χ^2
신체적 학대	31(17.8%)	3(25%)	0.38
언어적 학대	46(26.4%)	4(33.3%)	0.27
정서적 학대	10(5.8%)	3(25%)	6.35 **
성적인 학대	9(5.2%)	1(8.3%)	0.21

** $p < .01$

표 17. 임상 폭력 집단과 일반 가정폭력 집단의 학력 및 종교 분포

		학 력						종 교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χ^2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기타	χ^2
가정 폭력 유 (n=191)	피 해 자	0 (0%)	0 (0%)	4 (2.1%)	114 (59.7%)	69 (36.1%)	4 (2.1%)	47.16***	41 (21.5%)	36 (18.8%)	27 (14.1%)	83 (43.5%)	4 (2.1%)	4.75
	가 해 자	0 (0%)	2 (1.0%)	5 (2.6%)	74 (38.7%)	96 (50.3%)	14 (7.3%)	57.19***	22 (11.5%)	43 (22.5%)	16 (8.4%)	107 (56%)	3 (1.6%)	
임상 폭력 (n=13)	피 해 자	0 (0%)	2 (15.4%)	3 (23.1%)	6 (46.2%)	2 (15.4%)	0 (0%)		3 (23.1%)	1 (7.7%)	0 (0%)	9 (69.2%)	0 (0%)	
	가 해 자	2 (15.4%)	3 (23.1%)	1 (7.7%)	3 (23.1%)	3 (23.1%)	1 (7.7%)		0 (0%)	2 (15.4%)	1 (7.7%)	10 (76.9%)	0 (0%)	

*** $p < .001$

표 18. 생활 스트레스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 (n=192)	임상 폭력 집단 (n=13)	t
생활 스트레스	-2.16(2.53)	-2.76(15.53)	18.92***

*** $p < .001$ (집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

양육 태도

집단에 비해 더 통제적이고, $t(195)=2.2$, $p < .05$,
일관적인, $t(195)=2.6$ $p < .05$, 양육 태도를 보이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이 임상 폭력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그러나 피해자수와 폭력

표 19. 일반 가정 폭력 경험 집단과 임상 폭력 집단의 양육 태도

양육태도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 (n=192)	임상 폭력 집단 (n=13)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애정적	39.57(8.43)	38.80(7.39)	0.4
적대적	18.49(8.57)	15.00(12.02)	0.8
자율적	34.09(5.41)	35.18(7.79)	-0.2
통제적	25.36(5.76)	19.91(11.05)	2.2*
일관적	13.65(3.67)	10.00(7.09)	2.6**

** $p < .01$ * $p < .05$

의 심한 정도가 유사한 일반, 임상 폭력 집단 간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행동 및 앞으로의 계획

자녀 학대 가능성 및 학대 행위

임상 폭력 집단의 경우 부부 관계 문제로 인해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 $t(195)=-7.72, p<.001$, 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20). 또한 이들은 일반 집단에 비해 실제로 자녀에 대해 신체적 학대, $t(195)=-6.22, p<.001$,와 방임, $t(195)=-3.98, p<.001$, 을 유의미하게 더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그러나 피해자수와 폭력의 심한 정도가 유사한 일반 집단과 임상 폭력 집단 간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의 폭력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방식을 살펴본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 N=147)=9.25, p<.05$.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의 경우에는 “없었던 일로 하거나”(50명, 37.0%)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46명, 34.1%), “그냥 참거나”(27명, 20.0%), “경찰을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12명, 8.9%) 순서를 보였으나 임상 폭력 집단의 경우에는 “그냥 참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6명, 50.0%), 그 다음으로 “없었던 일로 한다”(4명, 33.3%)의 순서를 보였다(표 22). 앞으로의 폭력에 대한 대처 계획 면에서도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표 20. 일반 가정 폭력 경험 집단과 임상 집단의 자녀 학대 가능성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 (n=192)	임상 폭력 집단 (n=13)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아동 특성	아동의 장애	4.38(3.07)	3.73(0.79)	0.70
	출생 상황	4.81(2.18)	5.18(1.72)	-0.55
	아동 기질	10.09(4.28)	11.82(5.56)	-1.28
부모 특성	부부관계 문제	38.96(18.08)	73.36(18.64)	-7.72***

 $p<.001$

표 21.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과 임상 집단의 자녀 학대 행위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 (n=192)	임상 폭력 집단 (n=13)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신체적 학대	20.03(4.35)	30.27(14.23)	-6.22***
	정서적 학대	27.73(8.43)	29.43(4.32)	-0.53
	방임	18.15(4.07)	23.82(10.13)	-3.98***

 $p<.001$

표 22.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과 임상 집단의 폭력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방식

	일반 가정폭력 경험 집단 (n=135)	임상 폭력 집단 (n=12)	χ^2
없었던 일로 한다	50(37.0%)	4(33.3%)	9.25 *
그냥 참는다	27(20.0%)	6(50.0%)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46(34.1%)	0(0%)	
경찰을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12(8.9%)	2(16.7%)	

* $p < .05$

차이가 있었다, $\chi^2(6, N=137)=75.09, p < .001$.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의 경우에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함께 상담을 받거나”(61명, 48.8%),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23명, 18.4%)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배우자의 구타행동만 고쳐지기를 바란다”(15명, 12%) 순서를 보였다. 하지만 임상 집단의 경우에는 “이혼”(8명, 66.7%), “일시적인 별거”(2명, 16.7%)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표 23). 피해자수와 폭력의 정도를 동일하게 하여 재분석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결과 3: 임상 폭력 집단의 피해자 및 아동 특성에 대한 사례 분석

가정 폭력 피해자의 정신 건강

임상 폭력 집단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

표 23. 일반 가정 폭력 경험 집단과 임상 집단의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 계획

	일반 가정 폭력 경험 집단 (n=125)	임상 폭력 집단 (n=12)	χ^2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배우자의 구타 행동만 고쳐지기를 바란다	15(12%)	0(0%)	75.09 ***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고 노력하기를 원한다	61(48.8%)	0(0%)	
일시적인 별거를 원한다	7(5.6%)	2(16.7%)	1.00
이혼을 원한다	2(1.6%)	8(66.7%)	
배우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5(4.0%)	1(8.3%)	0.00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23(18.4%)	1(8.3%)	
기타	12(9.6%)	0(0%)	

*** $p < .001$

의 정신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 간이 정신진단 검사(SCL-90-R)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척도에서 집단 평균치는 정상범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각 척도별로 살펴본 결과, 환산점수 70T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체화, 강박증, 대인관계 예민성,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영역에서 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3명이 해당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4와 같다.

체를 보인 아동이 1명, 사회적 미성숙성을 보이는 아동은 2명, 사고의 문제 3명, 정서불안정성 3명,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외현화 문제를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지니고 있다고 보고된 아동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 우울 및 내재화 문제의 경우에는 5명의 아동이, 신체 증상은 6명, 위축은 8명의 아동이 유의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표 25).

아동의 행동 특성

논 의

임상 폭력 집단 자녀들의 문제 행동을 평정하기 위해 실시한 아동 행동 평가척도(K-CBCL)에서 “위축” 행동의 평균 T점수가 71.29로 정상 기준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척도별로 T점수가 70 이상인 아동의 빈도를 산출한 결과 성문

이제까지 가정 폭력에 대해 국내, 외에서 많은 조사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그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가정 폭력으로 의뢰된 임상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정 폭력의 여러 유형들 중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은 편이

표 24. 임상 폭력 피해자 집단의 간이 정신진단 검사(SCL-90-R) 결과

	평균(표준편차)	최소치 (T점수)	최대치 (T점수)	70T 이상 (명)
신체화	53.77(13.69)	35	84	1
강박증	50.54(14.88)	32	87	1
대인관계 예민성	50.77(13.82)	33	85	1
우울증	53.77(15.44)	33	85	3
불안	54.46(17.06)	37	96	1
적대감	55.46(19.61)	38	100	1
공포/불안	52.77(12.94)	40	83	1
편집증	53.38(14.68)	38	90	1
정신증	52.92(14.92)	38	92	1
전체증상 기준지수	53.38(17.48)	34	96	2
표출증상 기준지수	50.69(14.03)	37	88	1
표출증상 합계	56.85(23.53)	30	120	1

표 25. 아동 행동 평가척도(K-CBCL) 결과

	평균(표준편차)	최소치 (T점수)	최고치 (T점수)	70T이상 (명)
사회성	49.50(10.82)	33	67	0
학업수행	42.07(19.09)	0	59	0
총 사회능력	41.79(19.22)	0	63	0
위축	71.29(24.79)	41	99	8
신체증상	55.93(9.41)	40	70	6
우울	58.57(15.12)	36	80	5
사회적 미성숙	54.71(14.90)	37	86	2
사고의 문제	58.57(11.53)	45	75	3
주의집중 문제	57.00(13.06)	35	75	4
비행	59.86(11.93)	40	77	5
공격성	57.36(14.84)	37	82	4
내재화 문제	58.21(14.63)	33	77	5
외현화 문제	53.57(14.36)	36	84	4
총문제 행동	58.07(15.49)	35	80	5
성문제	34.57(23.55)	0	70	1
정서불안정성	40.93(29.67)	0	73	3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에 더해 언어적 폭력이나 위협과 같은 심리적인 폭력, 성적 폭력을 가정 폭력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각 폭력 유형별 발생 빈도 및 이러한 폭력 유형이 피해자와 자녀들의 심리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광범위하게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반 집단 총 조사 대상자 72명 중 192명(26.5%)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들 중 151명(81.6%)이 언어적 폭력을, 53명(27.9%)이 심리적 폭력을, 39명(20.9%)은 성적 폭력을, 그리고 36명(19.1%)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가정의 많은

부부를 중에도 상당 비율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심한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언어 폭력이나 심리적 폭력의 경우 일상적인 부부 싸움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폭력이라는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정 폭력 방지법에 언어적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언어 폭력의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가정 폭력의 지속 기간 면에서 살펴볼 때,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집단의 경우, 결혼 2-3년 후부터 현재까지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이 99명으로 51.56%에 해당하였고, 결혼 초부터는 52명(27.08%), 결혼 1년 후부터는 32명(16.67%)이었으며,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해온 사람 또한 9명(4.69%)이었다. 따라서, 일반 집단의 경우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가정 폭력의 발생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상 폭력 집단의 경우에는 결혼 초부터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72.7%), 결혼 2-3년 후부터는 2명(18.2%), 결혼 전부터 폭행을 당해왔다고 보고한 사람은 1명(9.1%)으로 결혼 직후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가정 폭력의 지속 기간 또한 17.2년으로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의 심각성 면에서 살펴볼 때도, 임상 폭력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을 유의미하게 더 사용하였다. 폭력으로 인한 상해 또한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임상 폭력 집단의 폭력 지속 기간이 길고 폭력의 정도가 심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 폭력을 타인이 개입할 수 없는 가정 내적인 문제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자에 대해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는 사회적 통념이 팽배해져 있어, 더 이상 손을 쓰기 힘든 지경에 다다라서 이 문제가 수면에 떠올라야 도움을 청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가정 폭력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일반 집단 중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정 폭력 무경험 집단에 비해 배우자의 언어 폭력 및 경미한 신체 폭력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 “나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의 표현이다”고 보고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더욱이, 신체 폭력이 앞

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더 높게 보고하였던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주부들은 가정 폭력 자체를 자신 및 가정을 파괴하는 용서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기보다는 부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거나 자신이 노력하면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정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학력의 경우 일반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상 폭력 집단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에 비해 학력이 낮은 편이었다. 가정 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도 임상 폭력집단과 일반 집단간 학력 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임상 집단 가해자의 경우 일반 집단에 비해 저학력자가 많았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내에서 문제 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송남두, 2000) 임상 집단의 표집 수가 작아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피해자들의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을 분석한 결과에서,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장기에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기에 가정 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정서적인 문제와 무기력감으로 인해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폭력 행동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Rossman et al., 1993). 임상 폭력 집단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보다 성장기에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 경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폭력의 심각한 정도와는 상관없이 폭력 피해자들은 성장기에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이후 부부관계를 포함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집단만을 비교했을 때,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 집단과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을 비교했을 때는 임상 집단이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생활 스트레스가 배우자 및 아동 학대와 관련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양육 태도 면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이 더 적대적이고,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 반면 가정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은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을 경험한 모가 아동에게 더 적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후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할만한 기회가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아동과 덜 상호 작용하는 경향이 있고, 아동의 욕구 수준에 둔하고 무반응적이며 과잉 통제적이라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자녀 학대 가능성과 실제 학대 행위를 분석한 결과, 일반 집단 중 가정 폭력 경험 집단의 경우, 무경험 집단에 비해 아동의 장애와 아동의 기질 및 부부 관계문제로 인해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더욱이 이들은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자녀를 유의미하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 폭력 집단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보다 부부 관계 문제로 인해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자신의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로 가정 폭력을 경험한 모들은 가정 폭력 경험이 없는 모들에 비해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 자녀들에게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학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행동에서 임상 집단의 경우, “그냥 참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반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일반 집단의 경우에는 “없었던 일로 한다”고 보고한 사람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임상 집단에 비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임상집단은 “이혼”, “별거”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상담 받으며, 서로 노력”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은 등 배우자의 폭력 행동이 나타날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상 집단의 경우에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폭력을 경험해 배우자가 더 이상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각하게 된 것에 비해, 일반 집단은 여전히 배우자의 폭력 행동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점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가정 폭력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경시하고, 배우자의 폭력 행동을 방치하여 결국에는 피해자인 모와 자녀들에게까지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상당 부분 간과되어 왔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오랜 기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즈음에는 이미 가정이 파괴된 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정 폭력의 예방책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는 임상 집단의 경우, 직접적인 면담이 어렵고, 실질적이고 방법론적인 문제로 인해 참여자의 수가 적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제 가정 폭력으로 여러 기관에 의뢰된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 제한점은, 일반 집단의 경우 서울 경기, 충청도, 영·호남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표집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촌이나 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문화적 자극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이들은 가정 폭력의 피해에 대해 농촌이나 소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농촌이나 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가부장적인 사

고방식이나 남존여비 사상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지역들에서 행해지는 가정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제한점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자녀들의 정신병리나 심리적 어려움을 직접 평가하지 못하고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평가한 점이다. 앞으로 가정 폭력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병리 및 폭력이 자행되는 가정에서 아동들이 겪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 진단 검사. 서울: 중앙적성문화사.
- 김광일 (1988). 부부 폭력의 임상 실제. 정신건강 연구, 제 9집, 한양 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174-183.
- 김정일,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행동과학연구, 7, 127-138
- 김재엽 (1998) 한국 가정의 폭력 실태와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지.
- 손정영 (1997). 갈등 대처 유형척도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 남편의 갈등대처 유형 및 아내학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2.
- 송남두 (2000). 가정 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 양육관 및 양육태

- 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유성애 (2001).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증후 변화에 관한 사례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윤양소 (1999). 부부 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덕희 (2001). 가정 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화정 (1998). 아동학대 평가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가정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
- 허남순, 장희숙, 김유순 (2000). 아내구타에 대한 경찰의 태도 및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 Achenbach, T. M., and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Burlington.
- Alissa, C. H., Alytia, A. L. and Michael, A. S. (2001).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young children's intellectual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3), 269-290.
- Azar, S. T., Barnes, K. T., and Twentyman, C. T. (1988). Developmental outcomes in physically abused children: Consequences of parental abuse or the effects of a more general breakdown in caregiving behaviors. *Therapist*, 11: 27-32.
- Browne, A. (1993). Violence against women by male partners: Prevalence, outcomes, and policy implications. *American Psychology*, 48: 1077-1987.
- Bousha, D., and Twentyman, C. T. (1984). Abusing, neglectful and comparison mother-child interactional style: Naturalistic observations in the home sett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106-114.
- Campbell, J.C (1991). Prevention of wife battering insights from cultural analysis. *Response*, 14, 18-24.
- Carlson, B. (1984). *Children's observations of interparental violence*. In Roberts, A. R. (ed.),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Springer, New York, pp. 147-167.
- Eckenrode, J., Laird, M., and Doris, J. (1993). School performance and disciplinary problems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29: 53-62.
- Folkman, S., & Lazarus, R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Gelles, RJ, & Straus, MA (1979).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Journal of Social Issue*, 35, 15-39.
- Graham-bermann, S., and Levendosky, A. A. (1998). Social functioning of preschool-age children

- whose mothers are emotionally and physically abused. *Journal of Emotion and Abuse*, 1: 59-84.
- Holden, G. W., and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Jaffe, P., Wolfe, D., and Wilson, S. K. (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Sage, Mewbury park, CA.
- Jaffe, P., Wolfe, D., Wilson, S., and Zak, L. (1985). Crit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children's adjustment to witnessing family violence. *Can. Mental Health* 33: 15-19.
- Korbin, JE(1995). Social network and family violence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ovember symposium Motiv, 42, 107-134.
- Levendoski, A. A., and Graham-Bermann, S. A. (1999). Parenting in battered women: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women and their childre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Margolin, G., and John, R. S. (1997). *Children's exposure to marital aggression: Direct and mediated effects*. In Kanton, G. K. (ed.), *Out of Darkness: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family violence*, Sage, Thousand Oaks, CA, 90-104.
- O'Leary, KD, & Jouriles, EN (1994). *Psychological abuse between adult partner*. In L. L'Abate (Ed.), *Handbook of Developmental Family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pp. 331-349). John Wiley and Son, INC.: New York.
- Rossman, B. B. R., Bingham, R. D., Cimbor, D. M., Dickerson, L. K., Dexter, R. M., Balog, S., and Mallah, K. (1993). Relationship of trauma severity to trauma symptoms for child witness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ugust 1993.
- Sarason, LG., Johnson, JH., & Siegel, JM. (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932-946.
- Schaefer, E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 Straus, MA., Hamby, SL., Boney-McCoy, S., & Sugarman, DB. (1996).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465-479.
- Wolfe, D. A., Jaffe, P., Wilson, S. K., and Zak, L. (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657-665.

원고접수일 : 2004. 2. 25

게재결정일 : 2004. 6. 22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Psychological Adjustment of Spouses and Their Children

Min-Sup Shin	Kyoung-Ja Oh	Kang-E M. Hong	Hae-Sook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ate, type, and severity of spouse abuse, and the attitude and perception of victimized wives regarding to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on abused partner's functioning and parenting behavior as well as their potentiality of child abuse. Subjects consisted of 721 married women in community and 13 victimized wives referred by police or court. Clinical psychologists who were trained in clinical interview and psycho-diagnostic tests collected data from the subjects using a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and questionnaires.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Negative Life event Questionnaire, Coping Strategy Questionnaire, CTS-2,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and a Scale for Attitude and Perception about domestic violence were used. In community group, wives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were 192(26.6%). Among them, the percentage of physical abuse was 19.1%, verbal abuse 81.6%, emotional abuse 27.9% and sexual abuse 20.9%. Women with abused history in community group perceived their husband's violent behaviors as an expression of concern, and as more changeable than women without abused history. Furthermore, abused women in community group reported that domestic violence could be understandable, while non-abused women reporting it would be absolutely unacceptable. Abused women in community group as well as clinical group were found to have more severe life stress compared to non-abused women. Abused women in community group showed more controlling and consistent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But, victimized wives in clinical group showed higher potentiality of child abuse due to problems in spousal relationship than abused women in community group. And also they show more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s well as neglect to their child.

Keywords :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Parenting attitude, Psychological adjustment